



코스피 1714.86 (-56.58)	코스닥 504.51 (-19.49)
금리 (미국 기준) 1.10 (-0.05)	환율 (원/달러) 1226.00 (+6.70) (16일)



[금융]
NH농협금융
김광수 회장
연임 무계
05

‘美제로금리’에 한은도 즉각 인하, 0.5%p ↓ 0.75%

역대 세번째 임시 금통위 개최

코로나 확산에 경기 불확실성 ↑
韓 기준금리 0%대 시대 열어

美, 두 차례 걸쳐 1.50%p 인하
글로벌 금융여건 심각으로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현실적으로 한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으로선 마지막 정책 카드를 내놓은 것.

당초 한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를 지켜본 뒤 17~18일 중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1.50%포인트 내리는 등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충격에 한은도 금리인하를 서두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격 금리인하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맞았다.

◆ 한은, 결국 금리인하… ‘가보지 않은 길’

한은 금통위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0%포인트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임시 금통위 개최를 통한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된 바였다. 한은은 지난 13일 임시 금통위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처음으로 청와대의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해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9일(0.50%포인트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0.75%포인트 인하)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0.75%로 ‘가보지 않은 길’인 0%대 기준금리가 됐다. 그만큼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며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 미 연준, 2주 새 기준금리 1.50%포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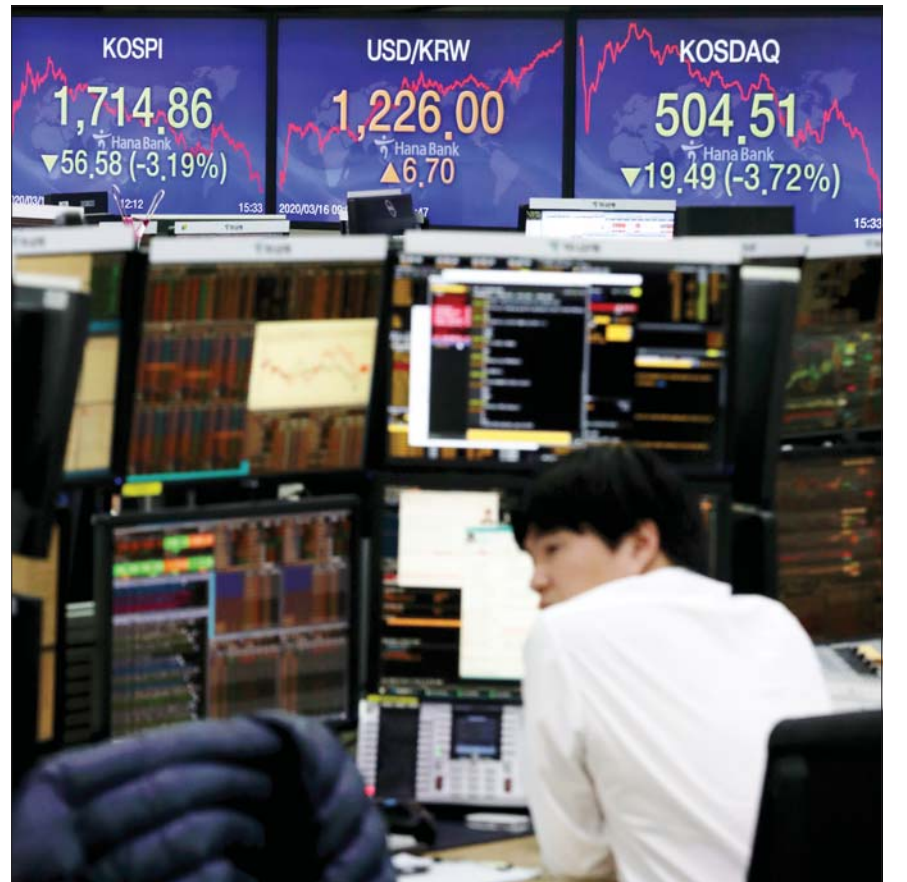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오는 17~18일 열릴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이뤄졌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줬다”면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일에도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리며 통상적인 금리 조정폭인 0.25%포인트의 2배인 ‘빅컷’을 단행했다. 이로써 연준은 2주일 사이에 기준금리를 총 1.50%포인트 내린 셈.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일요일인 주말에 금리를 내린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로,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금리 인상 이후 처음”이라며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한 제로금리까지 큰 폭으로 낮춘 것은 통화 당국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코스피 3%대 폭락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6.58포인트(3.19%) 하락한 1714.86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9.49포인트(3.72%) 내린 504.51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7원 오른 1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코로나19 장기전 돌입

“방역 생활화 된 일상 준비를”

정부, 소규모 집단 감염 늘어나
2~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를 연속 두자릿수로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2~3주가량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하고,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새로운 일상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보다 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은 전날 76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74명 가운데 42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고, 서울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에서는 은혜의 강 교회 내 감염자가 늘면서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금부터 2~3주간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 가 인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기존 유럽 6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만 출발 항공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상에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면 쉬다’는 문화를 정착하고, 고위험군의 감염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픈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화 지지가 필요하다”며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온라인·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美 금리인하에 코스피 9년 만에 최저치

美 금리인하 지수하락 부추겨
3% 이상 급락한 1714.86 마감

코스피가 또 3% 이상 급락하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 초반 급등하며 전일 9%대로 뛰어오른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듯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소식도 극단적으로 일어 붙은 투자심리를 돌리진 못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58포인트(3.19%) 떨어진 1714.86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초반 크게 오르며 한 때 18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다 장 후반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증가 기준으로 1710.32에 마감했던 2011년 10월 6일 이후 최저치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이날 6903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기관도 3409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926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크게 내려앉았다. 상위 50위 종목 중 단 5곳만 상승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보다 1050원(2.10%) 떨어진 4만 89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코스닥지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19.49포인트

(3.72%) 추락한 504.51에 장을 마감했다.

미 금리 인하 결정이 역으로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긴급 금리인하 결정이 재정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변질돼 투자자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장 후반 주가가 급격히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화값도 4년 만에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오른 1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2016년 3월 2일 기록한 1227.5원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송태화 기자 alvin@